



국회는 20일 기획재정부·법제사법위·환경노동위 등 12개 상임위원회 보름째 국정감사를 열어 정부·여당이 전날 발표한 금융시장 안정화 대책과 전·현직 정부의 권력형 비리, 정보기관의 '국감사찰' 등을 놓고 논란을 벌였다.

韓銀 금융위기 늑장 대처 질타

법사위 쌀 직불금 파문 신속 수사 촉구 복지위 직불금 명단 공개 요구로 파행

기획재정위는 이날 한국은행 국감에서 한은이 금융위기에 늑장대처하고 있다고 질타하며 금융시장 안정대책이 야기할 수 있는 부작용을 집중 추궁했다.

시중에 공급되는 유동성이 풀가 양등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정무위의 한국자산관리공사·예금보험공사·한국주택금융공사 국감에서도 금융위기에 따른 부실채권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촉구하는 질의가 잇따랐다.

법사위의 대검찰청 국감에서는 신·구 정권의 비리 의혹이 도마 위에 오르면서 전·현직 정부 관련 인사가 연루된 의혹이 있는 각종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를 두고 여야 의원 간 격돌을 벌였다.

한나라당 손범규 의원은 2003년 나라중금 사건과 관련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현직이라서 기소하지 못했지만 재수사를 통해 기소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같은 당 주성영 의원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비자금 조성 의혹

을 제기했다.

이에 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항간에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계획을 세워 검찰이 수사한다는 말도 있다"면서 "기획사정실"을 제기했고, 같은 당 우윤근 의원은 현 정권의 4대 게이트 의혹에 대한 수사진행 상황을 따져 물었다.

이날 법사위에서는 또 쌀소득보전직불금 파문과 관련해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국민은 쌀직불금 문제와 관련해 이렇게 관심이 집중되는데도 검찰이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하지 않는 데 대해 의아하게 생각한다"며 검찰을 압박했다.

한나라당 최병국 의원도 "사기죄든 공문서위조죄든 발본색원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야지 검찰의 태도는 숨겨려는 듯한 인상을 준다"고 지적했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는 20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공단이 감사원에 제공한 쌀 직불금 수령자 명단 공개 문제가 불거지면서 파행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송영길 의원(민주당)이 20일 서울 마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공단이 감사원에 제공한 쌀 직불금 수령자 명단의 공개를 요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를 거듭했다. 건강보험 제정과 운용, 국내 의료계의 문제점 등을 다뤄야 할 국감이 '직불금 국감'으로 변질된 것.

이날 국감은 민주당 양승조 의원의 건보공단 국정감사에서 지난 2007년 감사원이 공무원 신분 확인을 요청하며 공단에 남겨준 105만명의 쌀 직불금 수령자 명단을 제출

하라고 요청하면서 시작부터 심상찮은 조짐을 보였다. 하지만 정청근 건보공단 이사장은 직불금 수령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명단을 보관하고 있다고 시인하면서도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등에 규정된 개인정보 보호 의무 등을 들어 명단 제출을 거부, 국감은 파행으로 치달았다.

국회 기획재정부위원회 송영길 의원은 "국민은 쌀직불금 문제와 관련해 이렇게 관심이 집중되는데도 검찰이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하지 않는 데 대해 의아하게 생각한다"며 검찰을 압박했다.

“농가 수 주는데 직불금 왜 느냐”

행안위 이인기 의원, 광주시 국감 자료서 지적

광주지역 농가 수는 줄어지고 있는 반면 '쌀 직불금'을 수령한 경작자는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인기 의원이 공개한 '광주시민 쌀 직불금 수령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지역 쌀 소득 직불금 수령자는 모두 1만6천350명으로, 지난 2006년(1만4천294명)보다 2천56명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자치구별로는 지난해 동구지역에서 766명이 수령한 것을 비롯, ▲서구 2천532명 ▲남구 2천501명 ▲북구 4천365명 ▲광산구 6천186명 등으로 집계됐다.

이 의원은 또 올해 5개 자치구에서 1만7천887명이 '쌀 직불금'을 신청한 것

으로 나타나는 등 매년 꾸준히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반면 광주지역 농가수는 ▲2005년 1만4천50농가 ▲2006년 1만2천912농가 ▲2007년 1만2천798농가 등으로 매년 줄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의원은 "농가수는 줄어드는데 오히려 직불금 수령건수가 늘어나고 있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위탁경영을 하거나 농사를 병행하는 등의 이유로 직불금 수령자와 농가 수에 차이가 생길 수 있지만 직불금 신청자들에게 대한 실제 경작 여부를 철저히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광주시 채무비율 전국 3위”

행안위 김유정 의원 국감자료 “재정 건전성 취약”

광주시가 열악한 재정 자립도, 높은 부채비율 등으로 재정 건전성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유정 의원이 20일 행정안전부가 제출한 '시·도별 지방채무 상환 및 예산대비 비율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광주시의 경우 지방 채무 건전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예산대비 채무비율과 채무상환비율이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세번째로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 의원은 광주시의 채무상환율이 ▲2003년 1천518억2천400만원 ▲2004년 1천315억7천200만원 ▲2005년 1천283억9천800만원 ▲2006년 1천741억2천300만원 ▲1천804억5천800만원에 달하면서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채무 비중이 33.88%로 대구(43.69%), 부산(37.93%)에 이어 세번째로

높았고 채무상환비 비율도 대구(15.17%), 부산(12.34%)에 이어 3위를 차지했다고 지적했다.

예산에서 채무액이 차지하는 비율과 지방세·보통교부세 등 일반 재원대비 상환 채무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효율적 재정 운영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

국회 행정안전위 소속 민주당 최인기 의원은 "광주시는 재정자립도(50.4%)가 광역시 평균(62.8%)에도 못 미치고 부채비율(8.95%)은 전국 16개 광역단체 중 두번째, 1인당 총부채(87만8천원)는 16개 시·도 중 3번째로 높다"면서 열악한 재무상태를 지적하고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대책을 촉구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DJ 비자금 증거 있으면 수사하라”



법사위 박지원 의원



해서 3천억원을 조성했다는 얘기를 했다"며 "그러나 은행의 '은'자만 알아도 은행장이 500억원을 조성할 수도 없고 6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20일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이 제기한 DJ비자금 의혹과 관련, "증거가 있으면 수사하라"며 결백을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검찰에서 만약 CD원본을 가지고 있으면 수사를 해야지 사본을 만들어 외부에 유출했다면 검찰의 직무유기"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보도에 의하면 주 의원이 월간 조건의 신빙성 있는 보도를 예로 들면서 소위 DJ비자금을 수사하라고 했고 6명의 은행장들에게 500억원씩 가져오라고

명 은행장이 하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해 그래서 월간조선에서는 잘못 보도했다는 것을 시인하고 사과했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은 20일 "김대중 전 대통령의 비자금으로 추정되는 100억짜리 양도성 예금증서(CD) 사본을 확보했다"며 "CD는 2006년 2월 8일 발행돼 같은 해 5월 12일이 만기로 발행 의뢰인인 모 회사의 유령회사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박지을기자 jkpark@kwangju.co.kr

“광주 U대회 유치 전폭 지원하라”

지경위 조영택 의원



패했지만 유치 과정에서 소중했던 인적 네트워크를 쌓았고 광주의 인지도를 높이는 등 향후 개최를 위한 기반을 쌓는 데

조영택 의원은 20일 대한체육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광주시의 2015년 하계 유니버시아드대회 유치에 대해 전폭적으로 지원하라고 요구했다.

조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광주시는 2015년 대회 유치 재도전을 천명하고 142만 전 시민의 역량을 결집해 나가고 있으며 유치를 위한 전략 수립과 대회 개최를 위한 기본계획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소개한 뒤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광주는 지난 6월 2013년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유치에 아쉽게 실

성공했다"며 "광주가 서남권 중심도시로서 지속적인 성장 잠재력을 확보해 나가기 위해서는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와 같이 도시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국제행사 유치가 아주 절실한 만큼 대한체육회에서 보다 적극적인 유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지을기자 jkpark@kwangju.co.kr

“호남권 연구개발비 전체 3.2% 불과”

재정위 강운태 의원



820억원을, 전남은 0.8%인 2천300억원을 사용하는데 그쳤다.

광주와 전남·북지역 등 호남권에 대한 연구개발비 투자가 빈약, 과학기술 발전을 기약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부위원회 소속 무소속 강운태 의원은 20일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지역별 연구개발비' 자료를 분석, "지난 2006년 정부투자기관, 대학, 기업 등에서 사용한 연구개발비는 모두 27조3천460억원으로, 이 가운데 호남권에서 사용된 금액은 전체의 3.2%인 8천800억원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호남권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가 적은 탓에 특허출원 건수의 경우 지난해 내국인의 총 특허출원건수(12만8천701건) 중 광주는 2천320건(1.8%), 전남은 1천330건(1.0%)에 불과했고 특허등록 건수도 전국 총 9만1천645건 중 광주 1천351건(1.4%), 전남 723건(0.7%)에 그쳤다는 게 강 의원의 지적이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유네스코 인정 정규 대학교

한의대 유학! 국내에서 가능!

SCU한의대

www.scukorea.com

문의전화 010-6834-6253

취업 고민해결! 아메리카대륙에서 성공! 입학상담/설명회 매일 오후 3시, 4시

=전통47년! 전국 최다 합격자 배출, 명교수진의 환상의 강좌(직접확인)=

7.9 급 **공무원** 합격 대비

직종별 교재·관공·법·검·출·교·보·보·복·소·기

정·육·무·세·원·찰·공·판·정·진·호·지·방·술

'09년 시험은 지금부터

11월 1일(주) 야간반 모집

합격 회원 모집

6개월: 90만원 (교재 17만원 포함)

1년: 170만원 (교재 30만원 포함)

2년: 280만원 (교재 50만원 포함)

※ 수강료가 저렴, 필수합격 확인!

무등고시학원

www.mdgosi.co.kr

222-4560

새롭고 **공인중개사 전문학원**

서구점 ☎ 361-8111

북구점 ☎ 268-8111

교수진 전원 서울에서 출강! 전국 최대규모를 자랑하는 50명의 출제 위원급 교수진과 36개 학원 네트워크를 통해 합격시키는 강의의 진수를 보여드립니다.

개강 11월 3일 (주,야) 주부반, 성인반 국비무료 재직자반

처음시작하신분 위한 기초이론 강좌

연회원 등록시 선착순 50명 수강료 특별할인

교공보합재직자 교육비환급

선착순 60명

● 전국 최대규모의 공인중개사 전문학원(전국 33개 학원체인) ● 최고의 교수진들로 강의 질하는 학원 1위 ● 선배합격자들이 추천한 1등학원 ● 믿음과 신뢰를 주는 학원 1위

합격을 1위 전국수석합격

새롭고 행정고시학원

서구점 ☎ 361-8111

● 농성동 서구청 앞 광주은행 건물 2층

북구점 ☎ 268-8111

▶ 화정이전, 오차동 북부경찰서 건너편 새마을빌딩 4층

공인중개사 전문학원

● 44년 전통 합격률 1위

● 본원출신 전국수석 (승은명님 평균 96.7점)

"2009년 20회 공인중개사 시험대비는 지금부터 단계적으로 준비하십시오"

기초과정 → 기본이론 → 심화이론 → 핵심요약 최종문제풀이

개강 11월 3일 기초이론 & 용어 해설

"년회원 수강 등록시" 주부반, 성인반

수강료 20% 할인혜택 (60명) (주간반, 야간반)

직정민을 위한 교공보합 합격과정

본원 ☎ 227-8003 전남여고 맞은편 3F

국비무료 **행정고시** 원단원 ☎ 971-0002 (구)백련점 옆 광주은행 4F